

행복한 책 읽기

존 러스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느린걸음 퀘)

존 러스킨의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는 19세기 후반에 나온 인도주의적 경제학 책입니다. 이상사회의 꿈을 말하는 러스킨의 사상은 21세기인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며 절실하게 필요한 경제 개혁의 외침입니다. 러스킨은 "노동자는 노동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자는 노동의 공평한 보수로서 생존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제 20장의 한 구절인 '나중에 온 이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는 포도밭 주인의 말에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 러스킨이 인용한 그 구절은, 경제공황 때, 실업으로 내몰린 노동자를 이릅니다.

윤건이는 해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 사회경제적 약자의 다른 이름이다. 마지막 남은 일자리를 붙잡기 위해 해질녘까지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노동자, 냉혹한 경쟁 속에서 능력으로 인간성마저 심판받아야 하는 고용인들, 그리고 불안한 처지에 놓인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빈자가 식량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독자인 저에게 이들을 말하라면 바로 경제적? 정신적 빈곤에 내몰린 '우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21세기 신자유주의 시대, 우리는 사람답게 살기를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1위, 자살률 1위, 아시아 선진국 부패율 1위 등등 부정적인 선진국에서 삽니다. 빈곤층은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쪽으로 몰려 참담이 된 부자들을 떠받쳐주고 있습니다. 부는 철옹성에도 같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노동할 수 있는 권리마저 쉽지 않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정글 속 먹이사슬에 걸려 있습니다. 피라미드 맨 아래인, 약육강식에 노출된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의 생존이 심각합니다.

부의부인인빈현상은 고착화 되었고 사회악의 변명이 되어 사람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심화되어갈 것입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 빈자가 식량을 얻지 못하고 점점 더 빈곤의 나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한경쟁과 무한욕망의 시대에 사람답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해답을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에서 찾으려 합니다.

러스킨이 말한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 권리도 주장해야 하지만 더 큰소리로 주장해야 할 것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순수할 권리"라는 것을 되새깁니다. 빈곤하지만 존귀한 영혼, 인간됨을 지킬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국가가 못 해주는 복지를,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살아감으로써 서로 희망을 잃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윤건이는 해설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회의 마지막 자리에 놓인 이들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독자인 저는 이렇게 답하려 합니다. 행동하는 '상생'이아말로 러스킨이 말한 "경제학의 최대 변수는 '애정'이다"가 아니겠습니까. 현대자본주의 시대를 함께 걸어야 할, 인간의 존귀한 가치를 '애정'으로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현주 199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역량 강화 교육

광주여성재단 21일~23일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은 성평등교육 전문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을 21~23일까지 재단 8층 강의실에서 실시한다.

21일에는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홍세화(말과 활' 발행인)씨의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인가?', 유지나(동국대 영상학과 교수)씨의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본 미디어' 강의가 열린다. 22일에는 이선(전남대 철학과 강사)씨의 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스토리텔링 활용법'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23일에는 이진애(브랜드유리디자인센터 소장)씨가 강의 시연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성평등교육 전문 강사 2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교육신청서, 자기 소개서, 강의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비는 3만원이다. 문의 062-670-05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첨단골 열린음악회' 벌써 10년 ... 10월까지 매주 일요일 쌍암공원서

소박한 '동네 잔치' 소문난 '시민 잔치'로

주민 기금 모으고 공연자 재능기부 '상설문화' 선정 ... 4년째 국비 지원 왕버들 음악회·역사 탐방 등 다채

씨앗이 뿌려진 건 2004년 9월5일 광주 쌍암공원이었다. 통기타 가수 홍주연씨가 휴대용 스피커를 꺼고 노래를 부르자, 공원을 걸던 이들이 발걸음 멈춘채 음악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작은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아릅답게 나무로 커나갔다.

소박하게 시작한 '첨단골 열린음악회'(운영위원장 손경민)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매주 일요일 쌍암공원에서 열리는 음악회는 지난해까지 모두 273회가 열렸다. 민간이 주축이 돼 300회에 육박하는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여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출발은 첨단 지역 상권 활성화였다. 지역 상인들이 주축이 돼 음악회를 꾸렸고 상업적 느낌도 있었다. 하지만 몇차례 공연을 치르고 난 후 변화를 모색했고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꾸려보자고 의기투합했다. 심심일만 기금을 모으고, 출연할 가수와 단체들을 섭외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준 이들도 많았다.

전통·퓨전 국악, 락, 재즈, 통기타, 트로트, 밴드 등 모든 장르를 아우르며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음악회는 시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묵묵히 공연을 꾸려온 결과 지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에 선정되면서 지원금을 받기 시작했다. 4년째인 올해는 국비와 시·구비를 포함, 88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 6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행사를 시작한 첨단골열린음악회는 4월부터 10월(봄·가을 오후 4시~6시, 여름 오후 7시~9시)까지 열린다. 13일에는 난타와 풍물 공연이 열리며 훌리·기타 공연, 어린이 장기자랑, 합창·비비오 배틀, 31사단 군악대 공연 등 7개월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한여름밤의 호수 음악 축제'는 10년을 맞은 '첨단골열린음악회'의 대표 행사다.

<첨단골열린음악회 제공>

다리고 있다.

8월이 열리는 '한여름밤의 호수 음악축제'는 특별한 기획공연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 호수 음악회는 8월15일~17일 3일간 락 페스티벌, 전통·퓨전 국악의 향연·별밤가요제로 꾸며진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별밤가요제는 인기가 높다. 현재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임미현씨 역시 2008년 별밤가요제 대상을 수상한 후 첨단골 열린음악회에 합류했다.

5월 18일이 되면 매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놀이패 신명을 초청해 마당극 '연젠가 밤남' 공연을 가졌다. 올해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지난해 인기 높았던 518cm 김밥만들기 행사도 연다.

역사 문화 탐방도 진행한다. 4월에는 군산 근현대 사 박물관을 찾아가며 이후 '도선국사의 숨결을 느끼다-영남 구림마을' '역사의 재해석, 신숙주를 만나

다-나주 노안 금안마을' 등이 예정돼 있다. 문화탐방은 단순히 나들이만 가는 게 아니다. 지난해에는 담양 무월마을에서 공연을 하고 마을 잔치를 열었으며 올해는 무월마을의 농약집이 첨단골열린음악회 무대에도 오를 예정이다.

올해는 '하얀왕버들 음악회'도 새롭게 시작한다. 지금까지 병원, 양로원 등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음악회 틀에서 벗어나 직접 마을로 들어가 음악회도 열고, 동네 어른들과 잔치를 벌일 예정이다. 또 영·호남 교류를 위해 대구 열린마당과 합동 공연도 진행한다. 개막 행사에서 음식 나눔을 통해 기금을 마련한 주 최측은 매주 공연할 때마다 모금함을 마련, 소외계층을 돕는 데도 사용할 계획이다.

매주 프로그램은 카페(cafe.daum.net/kjopenconce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971-58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Tree of Life

'찰나의 빛' 꽃이 되다 광주신세계갤러리 이정록 초대전

마른 나무에 생명의 기운을 담아내고 있는 사진작가 이정록씨. 그는 독특하게 추웠던 지난 2006년 '생명의 나무'를 만났다.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 있는 나무에서 초록을 발견한 그는 그때부터 자연의 생명력을 담아내고 있다.

이씨가 카메라를 팔레트 삼아, 스트로보와 서치라이트를 물감 삼아 담고 있는 '생명의 나무'시리즈는 수많은 시행착오의 결과물이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나무를 찾아내서 거기에 스트로보를 반복적으로 터뜨려 만든 빛으로 꽃을 피우는 나무는 그의 작품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특히 해가 지거나 뜨기 전 자연이 자신의 은밀한 내면을 보여주는 그 순간 작가는 그 안에 담긴 수백 분의 일 초라는 찰나의 순간을 담아낸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16~20일 이정록씨를 초대해

'Tree of Life in Island'전을 연다.

이씨는 이번 전시에서 '제주 가시리 예술인 창작지원 센터'에 머물면서 제작한 신작 15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제주의 자연에 매료돼 바다, 들란, 숲과 오름을 탐험하며 더욱 생명력 넘치는 '생명의 나무'를 만들었다. 자연과 인간의 교감이 만들어낸 풍경들이다.

광주대 산업디자인학과와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에서 사진디자인을 전공한 이씨는 로체스터공대(R.I.T) 영상예술대학원에서 순수사진을 전공했다. 한미사진미술관, 신세계갤러리 등에서 14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광주비엔날레, 난징비엔날레 등 국제적인 기획전에 초대됐다. 지난 2006년에는 광주신세계 미술제 대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360-127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남문화예술재단, 문화이모작 기초교육 수강생 모집

전남문화예술재단이 향토 문화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4년 문화이모작 기초교육 과정'을 개설, 오는 29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오는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간 화순 금묘리조트에서 진행된다. 지역문화와 문화자원

이해, 주민 리더십과 생활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개발 기획과 문화마케팅 등 기초교육 과정과 화순성안마을, 광주 대인시장, 곡성 죽곡농민열린도서관 등 우수사례 현장 견학이 예정돼 있다.

모집인원은 40명이며, 예비 문화활동가, 마을이

장·부녀회장·운영위원장·체합마을 대표 등 마을리더를 비롯해 귀촌·귀농인, 은퇴 예정자, 예술인, 귀촌·귀농 준비자 등을 우선으로 한다.

교육비는 무료.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집중교육과정'(6월 11~13일)을 거쳐 3개 단계를 선정해 최대 7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기획사업'(6~11월)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1-280-5822, 5824.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기), 2008년(2기), 2010년(3기), 2012년(4기), 2014년(5기)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개령동 율동로 32번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